

'09. 5월중 산업용 전력판매량 1.4% 감소

- 교육용, 농사용은 큰 폭으로 늘어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과 (02-2110-5523)

■ 6월 15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, 5월중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(전체의 55.0%) 전년동월대비 1.4% 감소하고, 1~5월 누계로는 4.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
*산업용 전력: 광업,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적용

◎ 이는, 전년동월대비 조업일수 감소(Δ0.5일)와 수출감소폭의 확대(4월 Δ19.6%→5월 Δ28.3%) 및 전력다소비 업종인 철강·석유정제업종의 전력사용량 감소에 기인한 것임

* 주요업종별 전력사용량 증감율(전년동월대비,%) : 조선 6.7, 화학제품 6.7, 반도체 4.9, 기계장비 3.5, 요업 0.2, 자동차 Δ17.6, 조립금속 Δ8.6, 석유정제 Δ6.7, 펄프종이 Δ3.9, 철강 Δ2.1, 섬유 Δ1.5

◎ 타 용도별 전력판매량을 보면

- 주택용 및 일반용은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증가 및 소비심리개선에 따라 각각 3.9%, 4.0% 증가

- 교육용은 학교 신·증축과 학습설비 등의 확충으로, 농사용은 설비대형화로 인해 각각 10.6%, 9.6% 증가

- 심야전력은 전년동월의 낮은 수요성장(Δ9.4%)에 대한 상대적 반동효과로 3.2% 증가

■ 금년 5월 전체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.0%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둔화('09. 4] 2.4%→'09. 5] 1.0%)되고, 1~5월 누계로는 0.8% 감소하였음

■ 한편, 5월중 전력거래량은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.6% 증가한 316.2억kWh를 기록하였고

◎ 거래가격은 발전기 계획예방정비량 감소(Δ5.3%, '08. 5 : 760만kW → '09. 5 : 719만kW)로 저렴한 기저발전량이 증가*해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(SMP)은 13.1%, 평균 구입단가(정산단가)는 7.1% 각각 하락하였음

* 기저발전량 증가량 : ('08. 5) 24,607GWh → ('09. 5) 26,946GWh, 9.5% 증가

* SMP(System Marginal Price) :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

* 정산단가 : 실제 전력거래를 정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주요 연료원별(원자력, 유연탄, LNG등)로 SMP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총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

■ 5월중 최대전력수요는 5,319.7만kW(5월 27일 15시)로서 월평균 최고기온상승(0.6℃)의 영향으로 작년동월 최대전력수요에 비해 1.1% 증가하였으며, 전력예비율은 27.4%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음

* 월평균 최고기온 : ('08. 5) 23.2℃ → ('09. 5) 24.6℃